

# '4승' 페퍼스, 12연승 흥국생명에게 매운맛 보여준다

### 지난 6일 GS칼텍스에 3-1 역전승...테일러·이예림·장위 등 활약 내일 흥국생명과의 원정 경기...승리 바람타고 1위 '대어 사냥' 나서

'4승'을 기록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2연승' 흥국생명을 상대로 실력 테스트에 나선다.

페퍼스는 지난 6일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에 세트스코어 3-1(15-25 25-18 25-15 25-16)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테일러가 양 팀 최다 총 21득점(공격 성공률 36.36%)을 올리면서 팀의 네 번째 승리를 견인했다.

범실 관리에도 신경 쓴 테일러는 킥오픈-블로킹 등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든든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예림이 13득점(48%), 이한비가 10득점(29.03%)을 해냈고 장위가 블로킹 6개를 포함해 8득점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1세트 초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이주아의 연속득점을 앞세워 상승세를 탄 GS칼텍스가 첫 세트를 가져갔다.

페퍼스는 2세트를 맞아 1세트에서 부진했던 박정아 대신 이예림, 이원정 대신 박사랑을 투입해 분위기를 전환했다.

리시브 효율 12.5%의 이예림과 29.03%의 이한비가 공격 득점을 올리면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이어나갔고, 박사랑이 8.67%의 세트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세트를 선보였다.

GS칼텍스가 범실을 내는 사이 페퍼스는 격차를 벌였고 테일러가 이동 공격을 성공하며 2세트 승기를 가져왔다.

3세트 16-11 상황에서 이예림·테일러·장위가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10점 차 세트승을 따냈다.

역전승에 한 발짝 가까워진 페퍼스는 10-10상황에서 8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24-16에서 박은서가 오픈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페퍼스의 승리가 확정됐다.

승점 3점을 따낸 페퍼스는 5위(4승8패·승점12) 자리를 지켰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는 창단 이래 2

라운드 최다 승과 최다 승점을 기록했다.

기본 좋게 2라운드를 마무리한 페퍼스는 3라운드 시작과 함께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인하게 된다. 페퍼스는 10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V리그 3라운드 첫 경기 상대로 흥국생명을 만난다.

페퍼스는 지난달 2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치른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면서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지만, 지난 1일 여자부 최강자 흥국생명에게 셋아웃 패하면서 3연승 앞에서 좌절했다.

3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연패는 없었다. 페퍼스는 바로 GS칼텍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1라운드와는 다른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3라운드 첫 상대로 흥국생명을 다시 만나게 된 만큼 페퍼스는 난적을 상대로 실력을 검증받게 됐다.

흥국생명은 현재 부동의 1위(12승 12패·승점 34점)를 지키고 있다.

흥국생명 앞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GS칼텍스전 승리로 사기를 끌어올린 페퍼스가 '대어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첫 경기 상대로 흥국생명을 만난다. 지난 6일 GS칼텍스 서울Kixx와 치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공을 내려치기 위해 높게 뛰어 오른 테일러. (KOVO 제공)

## 광주 이창욱, 전남 최준원·추도윤...청소년 복싱 국대 선발

2025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에 선발된 최준원(전남기술과학고 2년-50kg), 추도윤(화순중 3년+80kg), 이창욱(광주제중 2년-46kg)이 내년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친다.

이들은 지난 4일 청양에서 종료된 '2025 U19 및 U17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각 계급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체급별 1위는 청소년 국가대표로서 내년 열리는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빠른 스피드가 강점인 2007년생 최준원은 32-8강에서 모든 상대를 5-0으로 제치고 4강에 오른 뒤, 최준수(울산스포츠과학고)를 4-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후 정우주(대구체육고)에 기권승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다.

최준원은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왔는데, 그만큼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동안 화순군청 형, 누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항상 지금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서 성인 국가대표까지 돼 임에서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9년생인 추도윤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체력을 자랑한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과 함께 올해 전관왕이라는 자신의 목표 또한 이뤘다.

추도윤은 8강에서 김준성(하양복싱클럽)에 3-2로 승리하고 4강에서 김민준(더아이프복싱)에



왼쪽부터 광주제중 이창욱·전남기술과학고 최준원·화순중 추도윤.

RSC(주심 중단)승을 거둔 뒤, 결승에서 정제하(광명복싱)에 5-0으로 승리했다.

추도윤은 "이번 시합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좀 더 간절했다"며 "내년에 처음으로 해외 시합을 나가보게 됐다. 세계 무대를 뽐낼 수 있어서 설렌다"고 밝혔다.

2010년생 이창욱은 4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튜브에서 복싱 경기 영상을 보고 세계 챔피언의 꿈을 갖게 됐다.

이창욱은 이번 대회 8강에서 김한별(대전중)

을, 4강에서 김지호(밴텀복싱)를 각각 5-0으로 꺾고, 결승에서 김태서(보성복싱마스터클럽)를 상대로 3-2로 승리했다.

이창욱은 "우승할 수 있어 기쁘고 내년이 기대된다. 저번에 졌던 상대인 김태서 선수랑 결승에서 만나서 이번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훈련하면서 힘들 때 나중에 잘될 거 생각하면서 참고 하는 편이다. 앞으로도 최강이 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피겨 서민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은메달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서민규(경신고)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민규는 7일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7.07점, 예술점수(PCS) 75.39점을 기록, 자신의 시즌 베스트 기록인 총점 152.46점을 기록했다.

서민규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69.68점을 합쳐 최종 총점 222.14점으로 미국의 제이컵 샌체즈(227.38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랑프리 7개 대회 종합 성적이 높은 상위 6명 선수가 참가하는 '왕중왕전' 격 대회인 주니어 그

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은메달을 수확한 건 지난 시즌 김현겸(한광고)에 이어 서민규가 역대 두 번째다.

쇼트프로그램에서 5위에 그쳤던 서민규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시상대에 올랐다.

서민규는 첫 과제인 트리플 악셀-트리플 토틀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수행점수(GOE) 1.03점을 챙기며 산뜻하게 첫발을 뗏고, 트리플 악셀 역시 깔끔하게 뛰며 1.71점을 추가로 받았다.

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더블 토틀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전반부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성공하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플라잉 카멜 스피ンは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하고, 코레오 시퀀스로 완성도를 더했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구간에서는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 단독 점프에서 통에지 판정이 나와 0.47점을 손해 봤으나 이어진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살코 단독 점프를 모두 안정적으로 뛰며 GOE를 넉넉하게 챙겼다.

이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과 체인지 풋 시퀀스에서 모두 레벨 4를 받아내며 연기를 마쳤다.

한편 여자 싱글 김유성(평촌중)은 최종 5위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연합뉴스

## 올해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1위 테니스 고프

### 테니스 상위 10명 중 6명

올해 전 종목 통틀어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3위 코코 고프(미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스포티코가 최근 발표한 올해 전 종목 여자 선수 수입 순위 따르면 고프는 올해 3040만 달러(약 433억원)를 벌여 1위에 올랐다.

고프는 지난해 이 순위에서도 2270만 달러로 1위를 차지, 2년 연속 '수입 퀸'의 영예를 안았다.

2004년생 고프는 2023년 US오픈 테니스 대회 단식 챔피언으로 올해는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4강까지 진출했다.

2위는 2210만 달러를 번 중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구아이링, 3위는 2140만 달러의 이가 시비웅테크(테니스·폴란드)가 차지했다.

상위 10명 가운데 테니스 선수는 고프와 시비웅테크 외에 4위 정천원(2060만 달러·중국), 5위 아리나 사발렌카(1770만 달러·벨라루스), 6위 오사카 나ومی(1590만 달러·일본), 7위 에마 라두카누(1470만 달러·영국)까지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소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